

##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

강 영 호<sup>†</sup>

심리상담소 Psy Care

오 현 숙<sup>‡</sup>

한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 편향이 공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측정 도구는 자기 보고형 가설적 상황 도구,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척도, 인지적 정서 조절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분석 도구는 Rstudio와 jamovi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집단의 적대적 귀인 편향이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집단의 적대적 귀인 편향과 적응적 인지 조절 전략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재평가와 수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내적 경험을 수용하고 상황을 재평가하는 인지적 전략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적대적 귀인 편향, 공격성, 적응적 인지 전략

\* 이 논문은 제1 저자 강영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강영호, 심리상담소 Psy Care,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64

‡ 교신저자: 오현숙,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Tel: 031-379-0135, E-mail: hyunsookoh@hs.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오늘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 속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다. 바로, 묻지 마 흥기 난동, 분노로 인한 충동적 살인, 재미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의도적 폭력, 이별 후 보복, 데이트 폭력처럼 사람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점점 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염려와 무관하지 않게, 국내에서 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경찰청, 2022), 2021년 동안 검거된 1,247,680명의 범죄자 중 264,229명(21.1%)이 폭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 범죄 311,232명(24.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살인, 강간 등 그 피해나 심각도가 큰, 강력 범죄 또한 22,992명(1.8%)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강력 범죄는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폭력 범죄자 264,229명 중 133,649명(50.5%), 강력 범죄자 22,992명 중 11,048명(48.0%)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강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단순 폭력 범죄는 50대 58,092명(22.0%), 40대 55,384명(21.0%), 30대 43,285명(16.4%), 20대 42,946명(16.3%), 10대 22,818명(8.6%)으로, 주로 40대, 50대 중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강간, 살인, 특수폭행 등이 포함되는 강력 범죄의 비율은 단순 폭력 범죄와 그 양상이 다른데, 50대 3,908명(17.0%), 40대 3,967명(17.3%), 30대(17.7%), 4,074

명(17.7%), 20대 5,513명(24.0%), 10대 2,442명(10.6%)으로, 오히려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전반, 심지어 가해자를 포함하여, 연결된 주변 자원들까지 파괴하고 고갈시키기 때문이다(Salaz. 2012).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경향을 감소시키고 최소화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다.

폭력과 관련된 공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손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수반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Anderson & Bushman, 2002). 해당 개념은 형태와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 측면에서는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공격성은 신체나 언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공격 행동으로, 간접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공격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Glover, Gough, Johnson, & Cartwright, 2000; Solberg & Olweus, 2003; Stockdale, Hangaduambo, Duys, Larson, & Sarvela, 2002). 구체적으로, 직접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폭행, 몸싸움과 같은 형태의 신체적 공격성과 욕설이나 인신 공격과 같은 언어적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Crick, Casas, & Mosher, 1997; Dodge, Coie, & Lynam, 2007; Hamilton, 2011; Ostrov, Murray-Close, Godleski, & Hart, 2013), 간접적 공격성은 따돌림, 거짓 소문, 모함하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Crick & Grotpeter, 1995).

목적 측면에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이차적 이득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공격 행동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 두려움, 도발에 대한 적대적인 분노 반응 및 적대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Dodge & Coie, 1987).

초기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현적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Buss, 1961), 행위 주체의 동기나 의도, 내적인 과정을 배제하여, 행동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함께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나 동기까지 포함하여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Dodge, Coie & Lynam,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이 목적에 따른 공격성 정의를 사용한 점과 연구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변인을 포함하는 목적에 따른 공격성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공격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좌절 경험으로 인한 욕구 불만, 과다한 남성 호르몬, 진화의 산물 등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단일 요인과 단순한 학습의 결과에 주목했다(Bandura, 1977; Berkowitz, 1964; Cairns, 1996; Dollard, Leonard, Miller, Mowrer, & Robert, 1939; Lorenz, 1966).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이나 생득적인 단일 요인만으로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나이, 성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후기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장면에서 인지, 정서, 생리 상태와 같은 개인의 다양한 내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고

자 하였다(Bushman & Anderson, 2020). 이러한 시도 중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델이 사회정보처리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IP)과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이다.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공격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각각 자극 단서의 부호화, 자극 단서의 해석, 반응 검토, 행동 산출, 피드백 및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호한 자극이나 사회적 단서를 부호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행동 산출 단계에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Dodge, Coie, & Brakke, 1982; Lemerise & Arsenio, 2000).

반면, 일반 공격성 모델에서는 사회정보처리모델보다 통합적이고 간소화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모델에서는 성격 등의 개인적 특징, 스트레스 등의 상황적 특징, 모델 학습 등의 환경적 특징이 외부 사건이나 자극, 단서를 입력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는 생리적 흥분 경로, 인지 경로, 정서 경로를 통해 내적 작용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공격 행동의 인출 과정을 1단계, 자극의 입력 단계, 2단계, 자극을 처리하는 경로 단계, 3단계,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출력 단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흥분이나 높은 스트레스 수준, 부정적인 정서 상태,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대적 해석이 상호작용이 공격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Wall, Anderson & Bushman, 2011).

공격성이 발생하는 요인과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적대적 귀인 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 HAB)이다. 적대적 귀인 편향은 앞서 설명한 두 공격성 모델의 1단계에 해당하는 자극 입력 및 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과정으로, 특정 사건이나 자극,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대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말한다. 이러한 적대적 귀인 편향은 공격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Bierman, Coie, Dodge, Greenberg, Lochman, McMahon, & Pinderhughes, E. E., 2002). 또한 이러한 인지 과정은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같은 생리적 흥분을 높임으로써 공격 행동의 발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ente, Bogaerts, & Veling, 2019; Weiner, 1991, 1993). 무엇보다 이러한 공격 행동이 반복되어 인출될수록 문제 해결의 주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Huesmann & Eron, 1989). 국내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 좌절 경험이 반응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이 사이에서 적대적 귀인 편향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예림, 강혜자, 2021; 이근희, 이민규, 2023), 적대적 귀인 편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슬, 박기환, 2023).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대적 귀인 편향이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은신, 이동훈, 2011; 정현심, 2014). 또한, 이러한 적대적 편향은 분노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노 정서가 공격 행동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적대적 귀인 편향이 간접적으로 공격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이정숙, 2009; 이영애, 1999, 2000a, 2000b; 이영애, 정

현희, 2002; 임성택, 2007). 그러나 이러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적대적 귀인 편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증가시키는 변인에 주목하고 있어,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개인의 대처 방식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Garnefski, Kraaij, & van, 2005). 이와 유사하게, 적응적인 인지 전략은 친사회적인 행동과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Rezaei & Zebardast, 2021). 자기 통제와 같은 행동전략은 공격성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지 전략의 활용 빈도에 따라 신체적 공격 행동의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tiérrez-Cobo, Megías-Robles, Gómez-Leal, Cabello, & Fernández-Berrocá, 2023). 국내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인지 전략의 활용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분노와 공격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지현, 이승연, 2013), 수감자 집단에서 적응적인 인지 전략이 자존감과 분노 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희, 강승호, 2010). 또한 적응적 인지 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주애, 2022). 이렇듯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과정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 인지적 특성, 행동적 대처 방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재구조화하거나, 스트레스 사건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기 경험 자체에

집중하면서 유연한 관점을 유지하는 인지 전략이 개인의 부적 정서와 부적응적 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노 문제를 가진 집단에서 단기간의 훈련만으로도 분노 정서에 대한 감내력과 공격 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uanasari, Keliat, & Susanti, 2020). 이러한 점에서 인지 전략이 개인의 인지적 틀과 공격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전략이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는 인지 과정과 공격성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단순 폭력과 같은 공격 행동의 비율이 낮지 않으면서도 살인이나 강간, 특수폭행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공격 행동 비율이 높은 20대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귀인 편향은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셋째, 각 공격성 수준에 따라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가 달라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및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부생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남성 107명(63.3%), 여성 62명

(36.8%)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1.1세 (SD=1.30)로 확인되었다.

### 측정도구

#### 자기 보고형 가설적 상황 도구

적대적 귀인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 (1995) 자기 보고형 가설적 상황 도구(a 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김은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단어(게임기 등)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나는 학교 복도에서 있었다. 그런데 같은 과 동기 두 명이 내 앞을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뛰라고 속삭이면서 웃었다.’와 같은 모호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항목당 1점에서 2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 최소 20점에서 최대 40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으로 귀인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Marsse, Kimon, Frick(2004)의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을 각각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도 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시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건다.’,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으로 변진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트린다.’와 같은 공격성의 형태와 목적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으며(0점: 그렇지 않다 ~ 3점: 확실히 그렇다),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 유사하게 반응적 공격성의 경우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으로 측정된다. 즉,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으로,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으로 나타났다.

### 인지적 정서 조절 질문지

인지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Garnefski (2001)의 인지적 정서 조절 질문지(CERQ;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의 9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문항,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적 인지 전략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긍정적 초점 변경(나는 즐거웠던 일을 생각한다), 긍정적 재평가(그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 조망 확대(나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계획 다시 생각하기(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한다), 수용(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

아들여야 한다)과 같은 인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으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하위 요인별로 최소 4점에서 최대 20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인지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RStudio (2023.09.1.+494), jamovi(Version 2.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정규성 가정 충족을 확인하고,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로 다중공선성 및 자기 상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를 실시하였고(서영석, 2010), VIF(1.049 ~ 3.706), 공차 한계(.241 ~ .0949), Durbin-Watson(1.851 ~ 2.011)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도 귀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하였다. 모형1에 예측 변인인 의도 귀인을, 모형2에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모형3에 의도 귀인과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고, RStudio car 패키지와 jamovi medmod 패키지를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 통계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 분석 결과는 표

표 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         |         |         |        |        |        |        |       |
| 2    | .68**** |         |         |        |        |        |        |       |
| 3    | .71**** | .79***  |         |        |        |        |        |       |
| 4    | -.13**  | -.20*** | -.21*** |        |        |        |        |       |
| 5    | -.11    | -.21**  | -.13**  | .64*** |        |        |        |       |
| 6    | -.06    | -.22**  | -.11*   | .70*** | .71*** |        |        |       |
| 7    | -.12    | -.18*** | -.13**  | .71*** | .75*** | .61*** |        |       |
| 8    | -.06    | -.13**  | -.03    | .58*** | .41*** | .54*** | .69*** |       |
| 평균   | 10.4    | 6.66    | 4.73    | 12.4   | 13.4   | 14.2   | 13.4   | 12.3  |
| 표준편차 | 11.4    | 8.33    | 7.09    | 3.31   | 3.07   | 3.32   | 3.67   | 3.58  |
| 왜도   | 1.32    | 2.29    | 2.62    | -0.28  | -0.36  | -0.51  | -0.31  | -0.30 |
| 첨도   | 0.46    | 6.41    | 7.72    | 0.42   | 0.93   | 0.39   | -0.12  | 0.05  |

\*  $p < .05$ , \*\*  $p < .01$ , \*\*\*  $p < .001$ . 1 적대적 귀인 편향, 2 주도적 공격성, 3 반응적 공격성 4, 조망 확대, 5 수용, 6 계획 다시 생각하기, 7 긍정적 재평가, 8 긍정적 초점 변경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예측 변인인 적대적 귀인 편향은 종속 변인인 주도적 공격성( $r=.68, p<.001$ ), 반응적 공격성( $r=.71,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적응적 인지 전략의 하위 요인인 조망확대( $r=-.13,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종속 변인인 주도적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 $r=.79,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의 하위 요인인 조망 확대( $r=-.20, p<.001$ ), 수용( $r=-.21, p<.01$ ), 계획 다시 생각하기( $r=-.22, p<.01$ ), 긍정적 재평가( $r=-.18, p<.001$ ), 초점 변경( $r=-.13,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응적 공격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하위 요인인 조망 확대( $r=-.21, p<.001$ ), 수용( $r=-.13, p<.01$ ), 계획 다시 생각하기( $r=-.11, p<.05$ ), 긍정적 재평가

( $r=-.13,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근거로 본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51부터 2.62, 첨도는 -.12부터 7.72로 나타나,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적대적 귀인 편향이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3.7, p<.001$ ). 이어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상호작용항이 투

표 2.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

| 중속 변인: 주도적 공격성 |       |         |         |                |        |          |
|----------------|-------|---------|---------|----------------|--------|----------|
| 예측 변인          | B     | $\beta$ | t       | R <sup>2</sup> | adj. R | F        |
| 적대적 귀인 편향      | .558  | .765    | 18.3    | .286           | .284   | 333.7*** |
| 적대적 귀인 편향(A)   | .550  | .755    | 18.0*** |                |        |          |
| 조망 확대(a)       | .150  | .059    | .822    |                |        |          |
| 계획 다시 생각하기(b)  | .105  | .042    | .635    | .309           | .329   | 60.0***  |
| 긍정적 초점 변경(c)   | -.037 | -.015   | -.284   |                |        |          |
| 수용(d)          | -.158 | -.058   | -.844   |                |        |          |
| 긍정적 재평가(e)     | -.387 | -.170   | -2.23*  |                |        |          |
| 적대적 귀인 편향(A)   | .521  | .715    | 17.1*** |                |        |          |
| 조망 확대(a)       | .161  | .064    | .887    |                |        |          |
| 계획 다시 생각하기(b)  | .094  | .037    | .585    |                |        |          |
| 긍정적 초점 변경(c)   | -.026 | -.011   | -.210   |                |        |          |
| 수용(d)          | -.173 | -.063   | -.928   |                |        |          |
| 긍정적 재평가(e)     | -.437 | -.193   | -2.71** | .346           | .389   | 3.36***  |
| A x a          | -.002 | -.009   | -.135   |                |        |          |
| A x b          | .006  | .028    | .424    |                |        |          |
| A x c          | -.002 | -.004   | -.081   |                |        |          |
| A x d          | -.025 | -.106   | -1.68   |                |        |          |
| A x e          | -.026 | -.133   | -1.93*  |                |        |          |

\*  $p < .05$ , \*\*  $p < .01$ , \*\*\*  $p < .001$

입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6, p<.001$ ).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38.9%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 2에 비해 6.0%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적응적 인지 전략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3, p<.05, F=3.36, p<.001$ ).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조절 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

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 변인의 특정 값( $1\pm SD$ )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효과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절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대적 귀인 편향과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  $1\pm SD$  값일 때, 주도적 공격성의 수준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적대적 귀인 편향이 높



표 3. 적대적 귀인 편향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재평가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 긍정적 재평가 | Effect | SE   | Z        | LLCI | ULCI |
|---------|--------|------|----------|------|------|
| -1SD    | .660   | .065 | 10.13*** | .440 | .613 |
| Average | .529   | .042 | 12.43*** | .528 | .787 |
| +1SD    | .397   | .055 | 7.22***  | .289 | .508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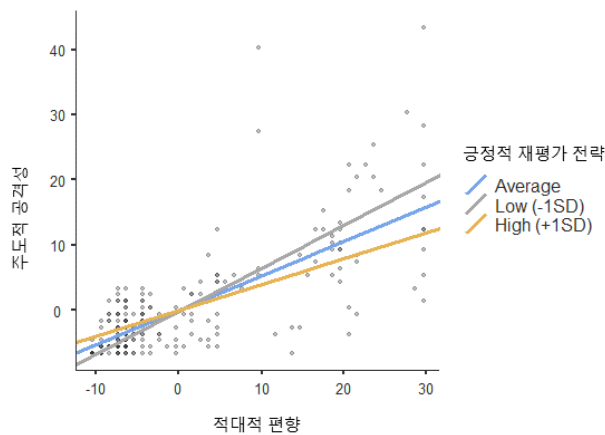


그림 1.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적대적 귀인 편향과 긍정적 재평가의 상호작용 효과

고,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적대적 귀인 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적대적 귀인 편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56.3, p<.001$ ). 이어서, 적대적 귀인 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162, p<.001$ ).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28.7% 포인트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

지 않은 모형 2에 비해 2.5%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적응적 인지 전략의 하위 요인인 수용 전략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4, p<.01, F=30.1, p<.001$ ).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수용 전략의 조절 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 변인의 특정 값 ( $1\pm SD$ )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수용 전략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효과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절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대적 귀인 편향과 수용 전략이  $1\pm SD$  값일 때, 반응적 공격성의 수준

표 4. 적대적 귀인 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

| 중속 변인: 반응적 공격성 |       |         |         |                |        |          |
|----------------|-------|---------|---------|----------------|--------|----------|
| 예측 변인          | B     | $\beta$ | t       | R <sup>2</sup> | adj. R | F        |
| 적대적 귀인 편향      | .448  | .722    | 16.0    | .221           | .249   | 256.3*** |
| 적대적 귀인 편향(A)   | .437  | .705    | 15.4*** |                |        |          |
| 조망 확대(a)       | -.206 | -.096   | -1.21   |                |        |          |
| 계획 다시 생각하기(b)  | -.028 | -.013   | -.182   | .234           | .262   | 44.2***  |
| 긍정적 초점 변경(c)   | .176  | .089    | 1.45    |                |        |          |
| 수용(d)          | -.072 | -.031   | -.414   |                |        |          |
| 긍정적 재평가(e)     | -.062 | -.032   | -.402   |                |        |          |
| 적대적 귀인 편향(A)   | .398  | .641    | 14.3*** |                |        |          |
| 조망 확대(a)       | -.173 | -.081   | -1.06   |                |        |          |
| 계획 다시 생각하기(b)  | -.009 | -.004   | -.063   |                |        |          |
| 긍정적 초점 변경(c)   | .188  | .094    | 1.63    |                |        |          |
| 수용(d)          | -.093 | -.040   | -.547   |                |        |          |
| 긍정적 재평가(e)     | -.138 | -.071   | -.943   | .295           | .287   | 30.1***  |
| A x a          | -.029 | -.155   | -2.10   |                |        |          |
| A x b          | .014  | .077    | 1.07    |                |        |          |
| A x c          | .025  | .146    | 2.40    |                |        |          |
| A x d          | -.039 | .194    | -2.86** |                |        |          |
| A x e          | -.011 | -.069   | -.933   |                |        |          |

\*\*  $p < .01$ , \*\*\*  $p < .001$

표 5. 적대적 귀인 편향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 수용      | Effect | SE   | Z       | LLCI | ULCI |
|---------|--------|------|---------|------|------|
| -1SD    | .542   | .058 | 9.35*** | .433 | .672 |
| Average | .416   | .048 | 8.54*** | .432 | .520 |
| +1SD    | .290   | .066 | 4.35*** | .117 | .439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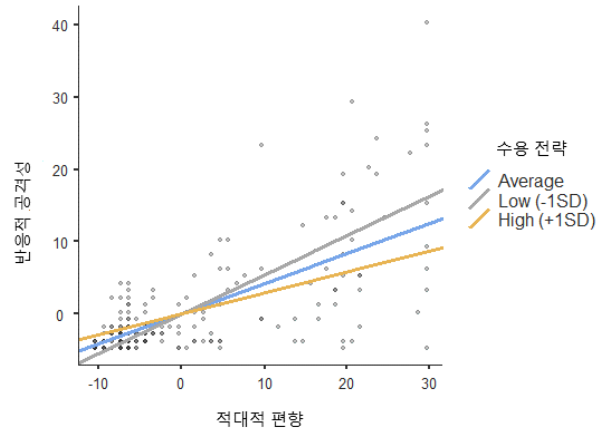


그림 2.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수용의 상호작용 효과

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적대적 귀인 편향이 높고, 수용 전략이 수준이 낮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여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귀인 편향이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김은경, 이정숙, 2009; 심은신, 이동훈, 2011; 유예립, 강혜자, 2021; 이건희, 이민규, 2023; 이영애, 1999, 2000a, 2000b; 이영애, 정현희, 2002; 임성택, 2007; 정현심, 2014). 즉, 적대적 귀인 편향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 단서를 지각했을 때, 그 원인을 의도적이고 적대적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공격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집단과 동일하게 성인 집단에서도 적대적 귀인 편향을 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 모두에서 인지적 편향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응적인 인지 전략이 공격성의 수준을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들(김은희, 강승호, 2010; 신주애, 2022; 안지현, 이승연, 2013)을 지지한다. 즉,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는 인지적 과정으로 인해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와 함께 공격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극 단서를 재평가하거나, 정서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등의 인지 전략을 사용했을 때, 공격성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재평가 전략과 수용 전략이 각각 독립적인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적대적 귀인 편향과 주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 독립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주도적 공격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개인의 이득을 위한 자기중심적 동기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Smeets, Oostermeijer, Lappenschaar, Cohn, van der Meer, Popma, Jansen, Rommelse, Scheepers, & Buitelaar, 2017). 따라서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나 사용하려는 행동전략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된 인지적 평가가 선행된다. Garnefski 등(2001)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을 재탐색하는 계획 다시 하기, 인지적 초점을 부정적 사건에서 즐거운 경험으로 변경하는 긍정적 초점 변경, 사건의 부정적 경험의 상대성을 평가하는 조망 확대 전략과 다르게 긍정적 재평가 전략은 상황으로부터 초점을 변경하거나, 사건이나 자극을 통제 또는 제거하기 위해 인지적·행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의 의미, 자기와의 관련성, 긍정적 경험의 여부 등에 대해서 재평가함으로써, 정서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인지적 전략이다(Gross,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이득 또는 긍정적 경험의 여부가 중요한 주도적 공격성에서, 긍정적 재평가가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 분노 정서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Casado, Sancho, & Salguero 2023).

한편, 적대적 귀인 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용 전략이 독립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반응적 공격성은 주도적 공격성과

달리, 외부 자극의 도발, 좌절 경험 등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Smeets et al., 2017). 즉, 주도적 공격성처럼 자기중심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응 행동이다. 즉, 스트레스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반응적 공격성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의 대처 방식을 탐색하거나, 상대적인 위협도를 평가하거나, 사건의 긍정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보다 스트레스 사건에서 경험하는 생각, 정서, 감각을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정서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 전략이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부적응적 신념의 강도를 약화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Williams & Lynn, 2010).

셋째,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한 적대적 귀인 편향과 높은 공격성을 지닌 개인일수록,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인지 전략이 부적 정서와 공격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들(김은희, 강승호, 2010; 신주애, 2022; 안지현, 이승연, 2013)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적대적 귀인 편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적으로 타인과 비교적 가벼운 갈등이나 다툼, 연인·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공격 행동을 동반하는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인 적대적 귀인 편향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적대적 귀인 편향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에서 인지 전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인지적 특성의 재구조화, 정서 수준, 신체감각, 스트레스 수준, 행동 대처 등과 같은 요인이 아닌, 인지 전략을 조절 요인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셋째, 공격성의 특성에 따라 인지 전략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 중심적 동기가 중요한 특징인 주도적 공격성에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재평가하는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 부정적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특징으로 지닌 반응적 공격성에는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전략이 각각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의 맥락 경험과 수용에 초점을 맞춘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 등이 공격성과 관련한 개입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몇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임상 집단에 일반화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예측 변인과 조절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을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위한 표집 과정에서 성비가 균형 있게 수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요인을 모형에 포함하여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요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공격성과 인지 전략의 조절 효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 도구의 한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자기 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했다. 따라서 방어 성향이나 긍정 왜곡과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과소 보고되는 경우를 변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된 척도 중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만 19세, 즉, 국내 기준으로 대학생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사용되었으나, 단순히 나이를 동일하게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연구 대상을 기준으로, 연령 기준과 더불어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대적 귀인 편향과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변인 및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작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크지 않아, 다른 요인을 모형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추가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22).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3](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3)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희, 강승호 (2010).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연구, 47, 119-143.
- 김이슬, 박기환 (2023). 성인의 적대적 귀인편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455-46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신주애 (2022). 취약성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문화와 정치, 9(3), 269-298.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21-42.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유예림, 강혜자 (2021).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편향 및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60(2), 383-406.
- 이건희, 이민규 (202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477-496.
- 이영애 (1999). 점화조건에 따른 공격. 비공격 청소년의 구조 접근가능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7, 127-147.
- 이영애 (2000).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도지각, 귀인 및 정서적 반응의 인과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애 (2000).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상황조건에 따른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2), 5-28.
- 이영애, 정현희 (2002).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따른 공격행동유발경로의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9(2), 87-111.
- 임성택 (2007).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및 공격충동의 관계에 대한 귀인성향의 통제 효과: 청소년 문제 상담에의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15(1), 105-118.
- 정현심 (2014).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rkowitz, L. (1964). The Effects of Observing Violence. *Scientific American*, 210(2), 35-41.
- Bierman, K. L., Coie, J. D., Dodge, K. A., Greenberg, M. T., Lochman, J. E., McMahon, R. J., & Pinderhughes, E. E. (2002). Using the Fast Track randomized prevention trial to test the early-start model of the development of serious conduct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4), 925-943.
- Buanasari, A., Keliat, B. A., & Susanti, H. (2020). The Application o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and Family Psychoeducation (FPE) to Clients with Schizophrenia and Aggressive Behavior. *Nurse Media Journal of Nursing*, 10(1), 11-21.
-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2). General Aggression Model.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Psychology*, 1-9.
- Buss, A. H. (1961). Stimulus generalization and aggressive verbal stimuli.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1, 469-542.
- Cairns, R. B. (1966). Aggres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genes, environments and interactions. *Ciba Foundation Symposium*, 194, 45-56.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41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667.
- DeWall, C. N., Anderson, C. A., & Bushman, B. J. (2011).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Theoretical extensions to violence. *Psychology of Violence*, 1(3), 245-258.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 (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s: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3), 389-409.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dge, K. A., &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NY: *John Wiley & Sons*.
- Dodge, K., Coie, J., & Lynam, D. (2007).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Dollard, J., Leonard, M. W., Miller, N. E., Mowrer, O. H., & Robert, R. S. (1939). Frustrations and Aggression. New Haven, CT, US: *Yale University*. 8(213).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rnefski, N., Kraaij, V., & van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5), 619-631.

- Glover, D., Gough, G., Johnson, H., & Cartwright, N. (2000). Bullying in 25 secondary schools: incidence, impact and intervention. *Educational Research*, 42(2), 141-156.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237.
- Gutiérrez-Cobo MJ, Megías-Robles A, Gómez-Leal R, Cabello R, Fernández-Berrocal P. (2023).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on in youngsters: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Helixon*, 9(3).
- Hamilton, M. A. (2011). Verbal Aggression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tecedents and Social Consequenc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1(1), 5-12.
- Huesmann, L. R., Eron, L. D. (1989).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trait of agg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 95-106.
- John C. Salaz. (2012). Adolescent Perceptions and Beliefs of Proactive-Reactive Aggression Explored Through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Aggress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ress.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Lorenz, k. (1966). On aggression. *Germany;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Navas-Casado, M. L., García-Sancho, E., & Salguero, J. M. (2023). Associations between maladaptive and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ve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1, 1-25.
- Ostrov, J.M., Murray-Close, D., Godleski, S.A., & Hart, E. J. (2013).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and social and affective processe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6(1), 19-36.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6), 1305-1320.
- Rezaei, S., & Zebardast, A. (2021).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indfulness, anxie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ers. *Journal of Practice in Clinical Psychology*, 9(2), 133-142.
- Smeets, K. C., Oostermeijer, S., Lappenschaar, M., Cohn, M., van der Meer, J. M. J., Popma, A., Jansen, L. M. C., Rommelse, N., N. J., Scheepers, F. E., & Buitelaar, J. K. (2017). Are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Meaningful Distinctions in Adolescents? A Variable- and Person-Based Approach. *Child Psychol* 45, 1-14.
- Solberg, M. E, & Olweus, D. (2003). Prevalence



-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9(3), 239-268.
- Stockdale, M.S., Hangadumbo, S., Duys, D., Larson, K., & Sarvela, P. D. (2002). Rural elementar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bullying.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6(4), 266-343.
- Tuente, S. K, Bogaerts, S., & Veling, W. (2019).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6, 66-81.
- Weiner, B. (1991). Metaphors in motivation and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46(9), 921-930.
- Weiner, B. (1993). On sin versus sickness. A theory of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social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48(9), 957-102.
- Williams, J.C., & Lynn, S.J. (2010). Acceptance: An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30, 5-56.
- 1차원고접수 : 2024. 04. 18.  
심사통과접수 : 2024. 06. 07.  
최종원고접수 : 2024. 06. 30.

##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YeongHo Kang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Psy Care

HyunSook Oh

Dept. of Psychology and  
Childcare,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169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hostile attribution,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and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As a result,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In other words, individuals with higher hostile attribution bias significantly predict higher levels of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with levels of aggression being regulated based on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specifically positive reappraisal and acceptance, i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expanded the literature by elucidating the roles of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in predicting aggression abou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underscored their significance.

*Key words* : hostile attribution bias, aggression,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